

2021년 2월 16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유럽 증시, 경제 정상화 기대 속 강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가능한 빨리 경제를 재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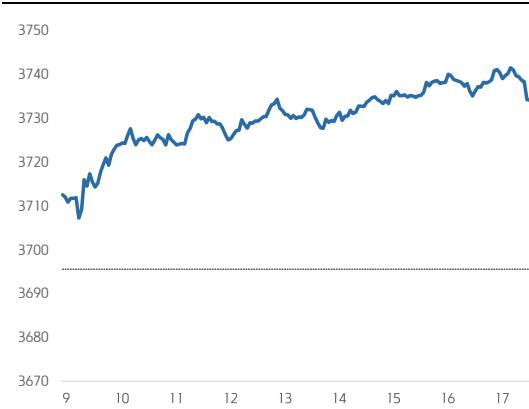
유럽증시 변화 요인: 백신 및 경제 정상화 기대 확산

유럽증시는 개별 호재성 재료 및 백신 접종 속도 확산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경제 재개 언급 등 경제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한편, 브렌트유가 미국 기후 및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점도 영향. 이에 힘입어 은행업종이 급등한 가운데 에너지, 레저, 경기 민감 종목군등이 상승 주도(독일 +0.42%, 영국 +2.52%, 프랑스 +1.45%, 유로스톡스 50 +1.04%)

유럽 증시는 은행과 레저, 에너지 업종이 상승 주도. 이는 경제 정상화 및 국제유가 강세에 따른 것. 경제 정상화 문제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경제 봉쇄가 코로나로 인한 마지막 폐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존슨은 이어 “4 월 말까지 50 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접종을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해 백신 접종 속도 확대를 기대. 더불어 WHO(세계 보건기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도 영향. 특히 WHO는 2 월말부터 저렴한 아스트로제네카의 백신을 빤곤 국가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 할 것이라고 발표.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되자 영국 여행 업종(+4.25%), 유럽 뱅크 지수(+2.91%)가 급등

한편, 미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WTI 가 시간 외로 작년 1 월 이후 처음으로 60 달러를 상회. 이는 사우디가 자국의 공항을 공격한 예멘 반군의 드론을 격추하는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데 이어 텍사스 지역에 겨울 폭풍이 휩쓸면서 셰일 오일 생산 중단 가능성이 부각 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2 월에만 WTI 가 16%나 급등하며 2 년내 가장 긴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겨울 폭풍으로 난방유 수요가 급증하고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 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 여기에 수급적으로도 주요 헤지펀드들이 2 월 9 일까지 원유 선물 및 옵션 계약을 통해 3,300만 배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이러한 매수 포지션은 2019년 초 이후 가장 긴 14 주 연속 증가. 이로 인해 브렌트유와 WTI 를 합한 순매수 포지션은 28 개월 최고치를 기록해 단기적인 상승세 지속 될 듯. 이러한 소식에 영국 석유 및 가스업종 지수(+6.08%), 영국 채굴업종(+4.55%) 등이 급등

유로스톡스 5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147.00	+1.50	홍콩항셍	30,173.57	휴장
KOSDAQ	981.97	+1.83	영국	6,756.11	+2.52
DOW	31,458.40	휴장	독일	14,109.48	+0.42
NASDAQ	14,095.47	휴장	프랑스	5,786.25	+1.45
S&P 500	3,934.83	휴장	스페인	8,203.50	+1.84
상하이종합	3,655.09	휴장	그리스	796.38	+2.61
일본	30,084.15	+1.91	이탈리아	23,604.31	+0.8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유럽 금융, 에너지, 레저 업종 강세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자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7.92%), 관광업체인 TUI(+9.15%), 인터콘티넨탈 호텔(+4.68%) 등 여행, 레저 업종은 물론 LVMH(+1.25%), 버버리그룹(+3.91%), 아디다스(+1.99%) 등 소매 유통업종, 급식 서비스 업체인 콤파스 그룹(+6.14%) 등이 상승 했다. 더불어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확산되며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ING(+6.50%), 소시에테제너럴(+6.45%), 방크 산탄데르(+4.11%), BBVA(+3.77%) BNP파리바(+2.30%), 도이체방크(+2.19%) 등 금융 업종도 상승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상품 시장 강세에 힘입어 토탈(+4.47%), 애니(+2.75%), BP(+6.53%), 로얄 더치 웰(+5.73%), 렙솔(+5.48%) 등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리오틴토(+4.25%), BHP(+5.22%), 앵글로 아메리칸(+4.88%), 글렌코어(+5.02%) 등 광산 업종도 급등했다.

한편, 프랑스 미디어 대기업인 비방디(+19.62%)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 유니버설 뮤직의 자본금 60%를 투자자들에게 특별 배당금 형태로 지급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한편, 텐센트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유니버설 뮤직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영국 유통업체인 테스코(-19.82%)는 법원에서 유통 창고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계획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자 급락했다. 폭스바겐(+0.63%), 다임러(+0.28%), BMW(+0.73%) 등 자동차 업종은 제한된 상승에 그쳤다.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매물 소화 과정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연휴 기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등 한 데 힘입어 관련 종목이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7 천억 넘게 순매수 하는 등 수급적인 부분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1.50% 상승 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 되며 상승 했는데 특히 금융, 에너지, 레저, 여행, 소매 유통업종이 상승을 주도 했다. 이는 투자 심리 개선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미국 남부 겨울 폭풍으로 인한 수요 증가 및 셰일오일 기업들의 생산 중단 사태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헤지펀드들이 원유 선물 및 옵션에 대한 대규모 매수세를 지속하고 있고, 원유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곡물 등 여타 상품시장의 선물 및 옵션 순매수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 상품 가격 상승을 야기 시키며 인플레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여파로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인한 금리 상승이라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지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며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질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금융, 에너지, 소매 유통 업종 등의 강세로 상승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금리에 대한 부담 속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04.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 출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유로존 무역수지 개선

12 월 유로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6% 감소 했는데 이는 지난달 발표치(mom +2.6%)는 물론 예상(mom -1.0%)를 하회했다. 전년 대비로도 0.8% 감소해 예상(yoy -0.3%)을 하회했다.

12 월 유로존 무역수지는 292 억 유로 흑자로 지난달(257 억 흑자) 발표치는 물론 예상(253 억 유로)를 상회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반면, 수입은 1.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 중국 수출이 2.2%, 수입은 5.6% 증가했다. 반면, 대 미 수출은 8.2%, 수입은 13.2% 감소했다. 대 한국 수출은 4.6% 증가한 반면, 수입은 7.0% 감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13 개월내 최고치

국제유가는 상품 선물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시간 외로 60달러를 넘어서는 등 1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도 강세를 보였다. 이는 예멘 반군의 사우디 공항 공격과 관련 드론 격추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미국 남부에 겨울 폭풍이 몰아치며 세일 오일 기업들의 생산이 중단된 점, 그리고 난방유 수요 급증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위험 자산 선호심리가 확산되자 엔화와 더불어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산업생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된 데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의 코로나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존슨 총리가 이번 봉쇄가 마지막 봉쇄라고 언급하며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미국 국채금리는 채권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시간 외 채권 선물이 하락해 금리는 상승 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유로존 경제 정상화 기대가 확산되는 등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높였으며, 원유 상승 확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유럽 채권 수익률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독일 30년물 국채금리도 3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은 선물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시간 외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확산되자 소폭 하락하고 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차익 매물 출회와 달러 약세로 인한 매수세가 충돌하며 혼조세로 마감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59.47	휴장	+4.61	Dollar Index	90.342	-0.15	-0.65
브렌트유	63.30	+1.39	+4.52	EUR/USD	1.2131	+0.09	+0.67
금	1,823.20	휴장	+0.56	USD/JPY	105.33	+0.37	+0.10
은	27.328	휴장	+1.14	GBP/USD	1.3905	+0.40	+1.19
알루미늄	2,083.50	-0.29	+2.74	USD/CHF	0.8901	-0.20	-0.98
전기동	8,393.50	+0.74	+4.44	AUD/USD	0.7782	+0.27	+1.04
아연	2,842.50	+0.30	+7.22	USD/CAD	1.2641	-0.43	-0.77
옥수수	536.50	휴장	-2.01	USD/BRL	5.3779	-0.14	+0.00
밀	641.25	휴장	-0.70	USD/CNH	6.4055	-0.25	-0.55
대두	1,371.25	휴장	+0.40	USD/KRW	1101.40	-0.51	-1.53
커피	123.05	휴장	-2.84	USD/KRW NDF1M	1102.59	-0.16	-1.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208	휴장	+3.77	스페인	0.258	+10.20	+13.30
한국	1.865	+3.50	+7.50	포르투갈	0.148	+4.40	+9.40
일본	0.081	+1.30	+1.00	그리스	0.768	+2.00	+0.80
독일	-0.381	+4.70	+6.40	이탈리아	0.526	+4.90	+1.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